

“교육부 정책결정, 합의·소통 부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자회견

자사고·외고 존치 정책 등 지적
“절대평가 결합시 파괴적 결과”
유보 관리체계 통합엔 지지 표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당에서 2023학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등학교 존치,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부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치원·보육 관리체계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를 표하며 시범도시로 서울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년기자회에서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퇴행적 정책이었다면 과감히 반대하고, 미래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은 서울이 먼저 나서서 전국 표준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꾸준히 자사고·외고 등의 폐지를 시사해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선호도는 날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자사고 경쟁률은 1.82대 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2025년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도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자사고·외고를 위한 특단의 강화 조치가 될 수도 있다”며 “자사고·외고를 폐지하고 않고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한다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내신 절대평가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전부터 교육계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유지 입장을 보인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별다른 논의 없이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과 관련 “현재 유보통합이라는 대원칙만 정해졌고,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 단계에 있다”며 “유보통합에 기반한 무상 유아교육 체제를 서울에서 시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고교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유보이음교육 사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공유 및 컨설팅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며 “2023년에도 서울시청과 협의해 컨설팅 등 소통과 협력체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기간을 3일까지로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일 오후 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의견 무시하고 졸속으로 유보통합 강행하는 교육부”라며 규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단의 설치·운영은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투시도

/서울시

서울시,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국토부 승인

한강 이남 잇는 골드라인 조성

2028년 완공 목표... 본공사 착공 준비
현 중점서 고덕강일 1지구까지 연결

서울시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중앙 관계부처,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현재 9호선 중점역인 중앙보훈병원역 중점부에서 시작해 길동생태공원 앞 교차로, 한영외고, 고덕역(5호선 환승)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4.1킬로미터(km)에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추진된 9호선 4단계는 지난 2021년 8월에 2공구, 2021년 12월에 1, 3공구의 우선시공분 공사가 착수돼 보도육교 철거, 지장물 이설 협의, 도로 점용허가 등 본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9호선은 2009년 1단계, 2015년 2단계, 2018년 3단계 구간이 개통돼 현재 개화역~신논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역, 41.4킬로미터(km) 구간이 운행 중이다. 2028년에 4단계 구간이 연장되면 서울 한강 이남을 동~서로 잇는 총연장 45.5킬로미터(km), 정거장 42개소의 도시철도 9호선 골드라인이 완성된다. /신하은 기자



경기 수원시청사 전경. /뉴스시

수원시 지역일자리 창출 팔건어

수원시가 ‘2026년까지 일자리 13만 3555개 창출(고용률 67.4%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일자리 많은 경제특례시, 빛나는 수원시’를 비전으로 하는 종합계획은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기업 유치·지원 ▲성공! 창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 ▲청년층 일자리 대책 확대 등 4대 전략과 17개 추진 과제로 이뤄진다.

추진 과제는 대기업·첨단기업 유치, 탈수원 방지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수원엔젤펀딩 추진,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등이다. /수원(경기)=유진채 기자 yujin@

‘보완적혁신’ 원년...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

서울시교육청 2023 주요업무 발표

초등 신입생 5만원 준비물 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3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3일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인당 5만원의 준비물 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거센 외풍에 흔들리는 교육의 중심을 잡고, ‘공존의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2023년을 ‘보완적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 ▲촘촘하고 다층적인 기초학력 보장 정책 강화 ▲공존화를 통한 보완적 혁신의 지평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존의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출발선 평등 보장, 학생들의 안전 보장, 마스크 시대의 그늘 해소가 최소조건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발선 평등 보장과 관련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학교생활 준비물을 지원받

을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학생 1인당 5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조치 요청 등 스쿨존 안전을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그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약 790억원을 투입한다. 학습지도와 상담 역량을 갖춘 학습지원 인력(튜터)을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밀착 지원하고,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학생 우울·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시범 프로그램 운영과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내용을 포함한 ‘2023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25개 실천과제와 88개의 세부실천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신하은기자 godhe@

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저

서울시 3년 연속 최저 농도 경신

지난해 서울 지역 대기질이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22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8 μ g/m³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최저 농도를 경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08년 26 μ g/m³ 대비 약

31% 감소했으며, 2021년의 20 μ g/m³과 비교해서도 2 μ g/m³ 줄어든 수치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배경으로 국내·외 대기질 개선 노력과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올해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자동차, 가정·사업장, 공사장 등 발생원별 대기질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26

1월 4일 (수)
음력 : 12월 13일

수도권 날씨
-6 ~ 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기온: 인천 -14/0, 동두천 -11/1, 가평 -12/1, 파주 -13/0, 서울 -6/1, 양평 -10/2, 수원 -5/2, 용인 -5/2, 평택 -9/2, 인천 -6/1, 백령도 -2/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IMF 총재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 세계 경제 악영향”
- ▲브라질 볼라 대통령 세번째 임기 시작... “무너진 나라 재건”



- ▲테슬라, 작년 131만대 인도... 연간 50% 성장 목표치 ‘미달’
- ▲베네딕토16세 전 교황 조문 시작... 첫날 조문객 2만5000명 예상



- ▲러 “우크라이나 공격에 63명 사망”... 대규모 피해 인정
- ▲월가 70%, 미 경기침체 전망... “하반기 금리인하 시작”